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1-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는 먼저 그가 베푸신 '은택'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음과 같이 송축합니다(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참고 사랑이 그지 없는') 중에 하나로서 시편과 여러 성경 구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시 86:15, 145:8, 율 2:13, 느 9:17, 약 5:11). 이는 모세오경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출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을 모두 없애 버리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분노에 대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죄도 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사람들의 죄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은밀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모든 언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두고두고 싸우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9-10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 범주에 속한 자들을 시인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

이 시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영적인 특권을 노래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1절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12절에서는 '동과 서'로 그리고 13절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 횡수가 끝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가 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

심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흠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은 우리가 풀처럼 약하고 금방 마르며 시들어 버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복음은 우리가 행한 순종과 업적 그리고 성취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입은 것입니다(엡 4:23-24,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실패에 집중하고 열등감에 사로 잡혀서 영적인 낙심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복음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인정과 박수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미국의 교회들과 신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오렌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파키스탄 최아브라함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